

김정은 박사, 신약개발 발전방안 논의

AI(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길리야드 김정은 부사장이 4월19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국내 제약업계 인사들과 만나 국내 신약개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과기부의 해외 저명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인 울트라 프로그램과 대한화학회 초청으로 방한중인 김우식 부사장은 4월19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및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들과 한국의 신약개발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우식 부사장은 길리야드가 2000년 매출 1억9000만달러에서 2005년 20억달러로 급성장한 성공 배경과 노하우를 소개하고 국내 신약 개발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길리야드와 스위스 제약기업 Roche가 공동개발한 AI 치료제 타미플루 등 세계적인 신약개발 배경 등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인 허영섭 녹십자 회장, 동아제약 유무희 연구소장, 화학연구원 김범태 선임단장, 서울대 약대 오우택 교수, 충북대 의대 배석철 교수 등이 각각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9>